날개 편 '행복바라미' 캠페인, 기부문화 변화 신호탄

날마다좋은날, 4년 통계 결산
기부 74.6% 증가 '화제'

역대 최다 모금함 183개소
사찰참여도 크게 늘어



"보통 '사랑의열매'나 구세군의 '자선냄비'에 기부를 합니다. 불교계에 이런 기부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했지요. 마침 사찰에 갔을 때 행복바라미 자선모금함이 있어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 조계사 신도 박OO씨(52세)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날마다좋은날이 진행하는 행복바라미 나눔캠페인이 불교계 기부문화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행복바라미 캠페인 모연액이 2013년 모금캠페인 시작 이후 최고 금액을 기록하고 사찰 참여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날마다좋은날 측은 이러한 증가에 힘입어 새해에는 300개 사찰에서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날마다좋은날에 따르면 2016년 한해동안 모금된 금액은 2억 760만원으로 이는 2013년 출범 당시 1억 1880만원에서 74.6%가 증가한 수치다. 2013년 첫 출범 이후 세월호 사건의 영향으로 2014년 1억 1170만원으로 감소했지만, 2015년 1억 71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16년에는 2015년과 비교해서도 3700만원이 증가했다.

날마다좋은날 측은 행복바라미 캠페인의 모금액 증가가 거리모금 활성화에 힘입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반사회의 대형 모금캠페인에 비해 미약한 금액이지만 출범 초기의 우려와 달리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날마다좋은날은 올해 4월부터 주요도시 10곳에서 지역문화제를 개최하는 한편 2015년 141개소에서 42개소가 늘어난 183개소에 모금함을 설치했다. 모집장소뿐만 아니라 참여사찰이 2015년 59곳에서 95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 같은 변화에는 중앙신도회가 지난해에 구성을 완료한 교구신도회의 활약이 컸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구랍 18일 조계종 제3교구 속초 신흥사를 끝으로 24개 교구 신도회를 모두 설치했다. 이기흥 회장은 각 교구신도회와 함께 1월부터 8월까지 300개 사찰에서 순회대장정을 열고 사찰의 행복바라미 캠페인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모금함 설치를 비롯해 모금 운영자 활동 등에 사찰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300개 사찰에 모금함을 미리 발송한 상태다.

행복바라미 캠페인의 특징은 다른 불교계 모금 캠페인과 달리 거리모금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2016년 모금액 중 거리모금액은 약 90%인 1억 7800만원에 달했다. 행복바라미 캠페인의 경우 카드 단말기로 결제가 가능하다.

이찬영 중앙신도회 사회공헌 팀장은 "대부분이 소액 기부다. 사찰의 협조도 있지만 많은 불자, 시민들이 작은 금액을 십시일반 보시하고 있다"며 "여기에 불교계의 협조도 늘고 있다. 울산사암연합회의 경우 울산지역 문화제 개최 후 23개 모금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도 했다. 모금소가 늘어나는 것은 모연 분만 아니라 행복바라미에 대한 브랜드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제 막 날개를 편 행복바라미 캠페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금의 스토리를 생산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최영우 도움과나눔 대표는 "비영리단체 모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토리의 생산과 확산, 기부자에 대한 돌봄에서 정서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며 "불교 외 일반국민과의 교감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날마다좋은날 측은 올해 모금액 중 1억 9380만원을 사회 소외계층에 지원했다. 지원인원도 역대 최다인 420명에 지원 금액도 평균 46만원을 기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인생 · 열정' 영화 해설 老 · 少 세대 넘다

어르신들이 서울노인영화제 영화에 대해 인생을 녹인 해설을 펼치자 우송대 복지학과 대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1월 11일 복지관 별관 2층 노년설계교실서 '서울노인영화제 순회상영회-시선'을 개최하고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및 학생 20여 명과 서울노인영화제 진출작 감상 및 해설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노인 감독작 〈실버만세(2014)〉와 청년 감독작 〈박스(2015)〉가 상영됐다.

영화 해설가로 활동중인 복지관 이용자 정현숙 · 백영자 · 김준영 · 김정애 · 김수연 · 박완희 · 장희성 씨 등이 나서 영화 상영 후 우송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다.

백영자(71) 씨는 "우리 세대는 일제강점기와 동란 등 겪으며 가장 치열하게 살아왔다. 그런 와중에 열심히 일해 현재 우리가 누리는 모든 조건을 이뤄낸 것"이라며 "영화를 통해 노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들의 열정을 느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미혼모 위한 '사회적기업' 설립하겠다"

도담하우스, 11일 신년계획 밝혀

1인 1자격증운동 전개
퇴소자 네트워크도 구축

불교계 유일의 한부모 · 미혼모 단일시설인 '도담하우스'가 입소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에 나선다.

사단법인 깨달음과 나눔(이사장 이매옥)이 운영하는 도담하우스는 1월 11일 2017년 시설 운영에 관한 정책을 밝혔다.

도담하우스는 신년 추진과제로 △사회적 기업 설립 △직업교육 △어린이집 설치 지원 △퇴소자 네트워크 구성 △청소년보호 · 지원 등을 내세웠다.

허진호 시설장은 "올해 상반기 정오사회복지법인(가칭)을 설립하고 하반기에 정부 지자체와 대체부지 확보 · 사업관련 부처 협의 · 사회적기업 아이템 선정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미혼모들은 취업이 쉽지 않다. 이들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도담하우스가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도담하우스는 입소자들에게 토탈공예 · 캘리그라피 · 전통매듭 · 메이크업 등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도담하우스 측은 기존 교육을 전문화해 '1인 1자격증 따기 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매옥 이사장은 '퇴소자 네트워크' 구축도 강조했다. 입소기간이 최대 1년으로 제한돼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퇴소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산모들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입소기간이 평균 3~4개월 정도로 짧다. 준비되지 않은 채 퇴소한 미혼모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사회적기업 운영과 더불어 아이를 보살펴줄 시설이 마련된다면 퇴소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매옥 이사장에 따르면 도담하우스는 어린이집과 미혼모 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 설치를 위해 관련부처와 논의, 후원을 확보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올해 도담하우스는 입소자를 위한 심리상담전문 생활복지사도 충원했다.

이매옥 이사장은 "사비로 충당하는 지원도 많아 힘이 들 때도 있지만 불자로서 '인간 방생' 하나만 보고 정진한다"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조계종복지재단, 국내 최대 복지관 위탁 '눈길'

11일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위탁 협약, 4월부터 운영

조계종복지재단이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을 맡아 눈길을 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은 1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총무원장실서 고양시청과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위 · 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4월 본격 운영되는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조감도.

고양시 덕양구 서정마을2로 13에 위치한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은 대지면적 5,488㎡, 연면적 15,318㎡ 지하2층~지상5층 규모로 단일 복지관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오는 4월 개관식을 개최하고 정신 운영에 돌입한다.

이번 협약으로 조계종복지재단은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사회보호 · 조직화 사업 △가족기능강화 교육 및 문화 사업 △평생교육센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영유아 · 노인 · 청소년 · 다문화 복지 서비스 등을 진행한다. 위탁운영 기간은 올해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5년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복지재단 상임이사 함결 스님,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 스님, 장안사 주지 성화 스님,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과 최성 고양시장이 참석했다.


위탁협약식 모습. 사진 오른쪽은 최성 시장.

자승 스님은 "이번 위 · 수탁 업무 협약으로 불교사회복지 위상을 공고히 하고 대외적으로 재단 운영 역량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양시에 새로운 미래 복지 비전을 도모하고, 능동적 ·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고양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앞으로 미래 통일시대 새로운 중심지로 역할 하게 될 고양시에 불교계 복지 · 포교 · 교육 · 문화를 퍼뜨릴 프로젝트를 꾸준히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복지재단 측은 "경기 서북부 지역에 불교복지 거점을 구축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통해 지역복지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겠다"며 "이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도시 지역에 대한 복지포교 이정표를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희 기자**

자비선사 명상지도사 과정 모집

성주 자비선사는 2월 25일까지 자비선명상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명상지도사 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자비선사는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소속단체로 명상지도사 과정에서는 자비수관(좌선명상), 자비경선(걷기명상), 자비다선(차명상) 등이 운영된다. 모집인원은 각 반 당 20명 씩이다. 강사로는 보리마을자비선원명상원 선원장 지운 스님(동화사 율주)이 나선다.

개강은 3월 4일과 11일 두차례 진행된다. 수강료는 연간 60만원으로, 일괄 납부시 50만원으로 할인된다. 또 자비선사 후원자의 경우 20% 할인 혜택이 있다. 청강도 가능하다. 청강생은 각 회차별로 6만원씩 참가비가 있다.

자비선사 측은 "템플스테이 우수운영사찰로 그동안 많은 이들에게 불교전통을 알리는데 앞장서 왔다"며 "좌선, 걷기, 다도 등에 걸쳐 다양한 명상문화를 알리기 위해 이번 강좌를 마련하게 됐다. 의식의 특성 및 작용 등 이로부터 상상기법을 활용한 예비명상 등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문의 (054)931-8874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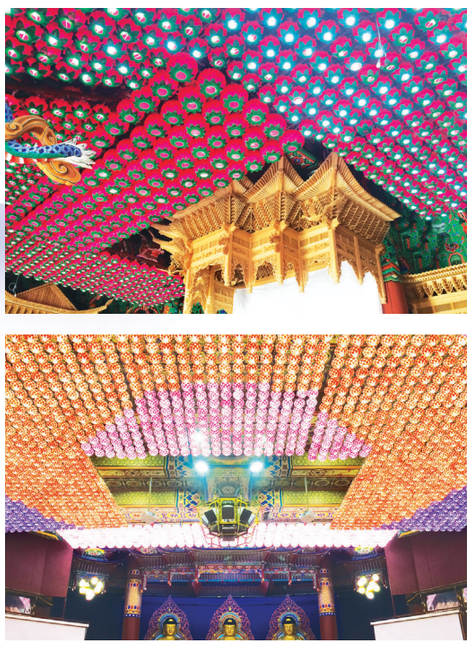
연등전문기업 대광불교

지혜의 등 · 자비의 등
연등을 밝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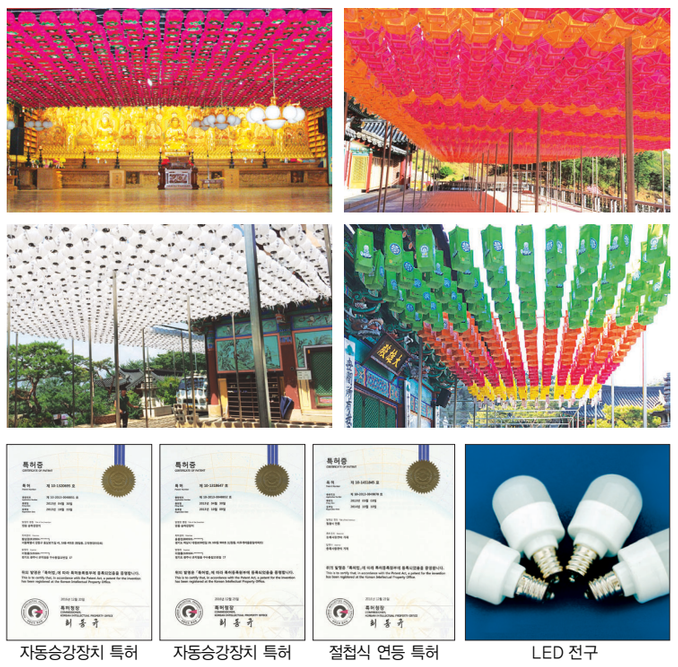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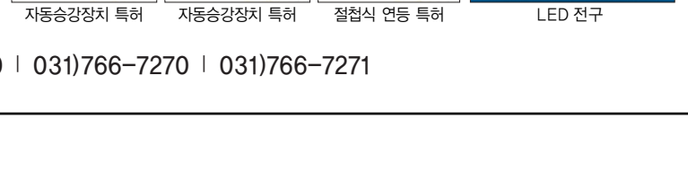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6-7270 | 031)766-7271